

데스크 시국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광주의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5월이면 가슴앓이를 한다. 5·18은 이미 오래 전 국가 기념일이 됐고, 법적 행정적으로도 완성된 민주화운동이 됐다. 나아가 아시아 역사에서, 시민의 힘으로 한 국가의 민주화를 일군 현대 민주주의 운동사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5·18이 43주년을 맞은 올해도 광주의 기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오월의 가위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 지역에서 5·18을 전담하는 현장 기자들은 20대에서 40대 초반의 기자들로 대다수가 5·18 이후 세대이다. 5·18이 40년을 지나면서 특히 20대의 젊은 기자들에게 5월 한 달은 역사 속 미로 찾기의 연속이기도 하다. 40여 년 전 아버지 세대의 기자들로부터 대를 거쳐 속명처럼 내려 온 5·18 취재는, 강을 거슬러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본능 같은 5월의 DNA가 그들에게 흐르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송고한 희생

오월이 오면, 광주의 기자들은 말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추적해 오던 그날의 진실, 발표자와 암매장을 명백히 밝힐 모든 재료를 모아 5월 18일 이전에 기어아 보도하겠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5·18 담당 기자는 수년 단위로 바뀌지만, 발표자와 암매장의 진실

은펜칼럼



이병우 유아포인트연구소 대표

최근 한 일타강사의 100억 연봉과 셉템과 같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 방송과 공중과 방송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찬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100억 연봉 일타강사'의 존재는 '사교육 공화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교육 공화국'의 폐해를 지적한다. 사교육 공화국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학생들과 학부모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유명 입시학원과 일타강사들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교육 공화국 현상에 대해서는 질타하면서 그 최대 수혜자인 '일타강사'의 부상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100억 연봉의 일타강사,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한

기 고



박영길 순천 국립유림관리소장

2022년 봄 순천 왜성(倭城)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현장 확인 및 방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전라남도 문화재 구역인 순천 왜성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긴급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대로 감염된 나무는 파쇄하고 주변 미(未)감염목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실시했다.

1598년 9월 순천 왜성 주변에서 조·명 연합군과 왜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왜성에는 일본군이, 건너편 검단산성에는 조·명 연합군의 지휘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검단산성에서는 순천 왜성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 명나라 황실 중군 화가가 그린 '정왜기공도권'(征倭紀功圖卷)에 전투 장면과 왜성의 모양새가 너무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역사 고고학의 가치가 충분히 보인다. 왜성의 가장 중요한 천수각 주변에 소나무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도 소나무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420여 년 전의 소나무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같은 위치에 우람한 소나무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5월 광주의 부족한 디테일

을 규명하려는 마음만은 변치 않고 이어진다. 모두가 5월을 취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5·18 기자가 되면 그들은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업보인양 '그날'을 취재한다. 말하지 않아도 이유를 알고 있고, 무엇보다 목표가 명징한 탓이다.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변해야지'라는 말을 귀에 박히게 들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은 올해도 이어졌다.

광주일보는 올 5·18 기간에 그동안 80년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됐다는 수많은 제보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던 암매장 현장을 찾아 보도하는 등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다. 이제 5월을 보내고 또다시 내년 44주년 5·18을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언론의 헌신, 시민들의 의식, 5월 단체의 투쟁을 바탕으로 5·18은 국가 행사이자 민주주의 성공의 기념일로 완전히 정형화됐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자 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모두는 광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광주를 가꾸는 데에는 소홀했다.

기자가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5월 기간 겪은 광주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고하려 한다. 총장로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발성 기고문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광주는 사실상 5월 초만 추모와 행사 모드로 들어간다. 전국 각지에서 외지인들이 찾아 오고, 크고 작은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

그런데 5월 15일 오전 11시께 광주 금남로 5가 인근에서 차선 도색을 하는 여러 대의 차량들과 마주했다. 365일 하고 많은 날 중 5·18 기념식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차선을 칠하는 이유는 뭤까. 그것도 5·18 주요 항쟁지인 금남로에서. 다음날인 5월 16일 오전 10시 40

분, 광주시 동구 불로동 옛 녹십자병원 일대에서 도로포장을 하는 롤러차를 발견했다. 너무도 화가나 욕설이 튀어나왔다.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사 담당 공무원이든 관련 회사든 최소한 계약 단계에서부터 외지인 방문이 많고, 추모 기간인 5·18일 주간은 피했어야 할 것이다.

자랑스러운 역사 걸맞은 도시로

5·18 행사가 모두 끝난 5월 28일, 총장로 '케이팝스타의 거리' 입구에는 맥다 바린 음료수 일회용 컵 수십 개를 비롯해 쓰레기들이 수북히 쌓여 시민은 물론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게다가 평일 오후 7~8시까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총장로 일대의 식당들을 순회한다. 수거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울 때 나는 썩는 냄새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는 손님들의 기분은 물론 타 지역 사람들의 광주에 대한 인상을 깎아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5월 중 광주 금남로와 총장로 일대 풍경에 대한 회사원의 단상이다. 그저 출퇴근 과정에서 부딪혔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부디 다른 지역들은 별일이 없었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거대한 자부심이 무모한 자신감으로 변한 탓일까. 광주는 자신을 가꾸는 디테일이 너무도 부족한 도시로 전락했다. 도시의 현재 가치가 아무리 역사성에 기반하고 있다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 현대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상징이 아무리 숭고해도, 남이 보기에 무질서하고 더러우면 도시의 가치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

100억 연봉의 일타강사, 그 불편한 진실

진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00억 연봉 일타강사' 현상은 사교육 시장이 어떤 경쟁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 이는 '사교육 공화국'의 부산물로서, 학원 및 사교육 분야의 성장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을 상품화하고 가치의 왜곡을 조래하는 중요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강사의 수익이 100억에 달하는 것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흐리게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둘째, 일타강사 현상은 '교육의 상품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강사들의 강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팔리면서, 교육은 더욱 시장의 법칙에 따르게 된다. 교육 기관들은 학생들의 학습 향상보다는 학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인기 있는 강사를 확보하고 그들의 강의를 판매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일타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도 있다. 이는 교육의 과도한 상품화를 부추기며, 교육의 접근성과 품질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사교육의 과열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출신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고액 과외가 경제적 부담

을 초래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교육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는 단순히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와 같은 고가의 사교육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신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해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게 무슨 문제냐? 인간성도 좋고 배울 점도 많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호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일타강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사교육 공화국의 부산물, '100억 연봉의 일타강사'를 보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의 평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이슈가 아닐까 한다. 먼 훗날엔 100억 연봉의 일타 강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회자되길 기대해 본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힘 모아야

그 때 당시의 화가도 소나무를 눈여겨본 것이다.

소나무 재선충은 감염된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해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구제(驅除)가 중요한데 감염된 나무를 가스를 이용해 훈증하거나 집으로 파쇄해 애벌레를 제거하는 방법을 쓴다. 또 예방 약제를 수간(檢幹) 주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방제하고 있다. 감염목 지역의 소나무를 떨감이나 목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단 이동시키는 것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새를 많이 사냥하고 노력을 들여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한다.

광양시 지역에 우람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돼 집으로 파쇄해 버리면 너무 아까워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 방문을 해 확인해 보니 성인 두 명이 손을 맞잡아야 할 정도로 큰 대경목(大莖木) 세 그루가 서로 가까이 서 있었다. 가슴 높이에 지름이 각각 74cm, 77cm, 78cm로 통직한 소나무들이었다. 그중 두 그루는 이미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수피가 벗겨지고 있었고 한 그루는 미감염 상태였다. 미감염목은 예방수간 주사를 실시했지만 감염된 두 그루는 감염목인 이상 벌목 후 처리 여부를 고민해야 했다. 우람한 소나무여서 주변에 누군가 수목장을 했는지 조그마한 추모석도 있었다. 수목장을 한 사람을 수소문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벌목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해 벌목 동의를 받고 미감염된 소나무는 예방주사를 놓겠다고 설명을 했다.

운반이 어렵지만 3.6m 이상 길게 자른 뒤, 용재가치가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 훈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켰다. 훈증은 지름 2cm 이상 잔가지도 모두 수거해야 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훈증포에 가스를 넣어 6개월 정도 목재 안에 있는 솔수염하늘소 애벌레를 고사시킨 후 안전한 상태로 반출할 계획이다. 그러던 현장에서 훈증한 후 폐기되거나 가치가 적은 칩으로 생산된 소나무가 훨씬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은 목재는 문화재 복원이나 건물 기둥, 대들보 등으로 거듭나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우람한 소나무가 감염되면 방제하는 데 훨씬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완벽한 방제도 어려운 골치덩어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대경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주사를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에 소나무 재선충 훈증 무더기가 있는 광양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무더기에 한번 불이 붙으면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산불 진화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껴 가시권 권역이나 산불 위험이 있는 지역의 훈증 무더기를 제거하는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훈증하고 또 몇 년 후에는 훈증 무더기를 제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아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한다는 소나무를 잘 보존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으면 한다.

社說

무안군, 혈세로 군 공항 반대 여론 몰이했다니

무안군이 최근 5년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데 혈세 28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가 무안군 예산·결산 보고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억 8063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6억 1690만 원, 2021년 6억 6638만 원, 2022년 5억 5198만 원, 2023년 3억 7114만 원 등 모두 27억 8703만 원을 군 공항 이전 반대 사업에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관련 단체 지원과 홍보 사업, 주민 직접 지원, 공무원 업무 추진 등 네 가지로 나눠 집행됐다. 우선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에 2020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 무안군 곳곳에 설치된 군 공항 이전 반대 안내판, 택시·버스 광고 등 '군 공항 이전 사업 바로 알기' 홍보에는 12억 7900만 원을 썼다. 견학 차량 임대비와 식비 등 반대 행위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도 4억 8250만 원을 집행했다.

이러한 재정 투입은 김산 군수 취임 이후 지난 2019년 7월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정 조직 개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례 내용대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할 무안군이 사실상 반대만을 위한 정보만을 일반적으로 제공, 찬성 여론은 원천 봉쇄해 왔는데 문제가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자체가 여론몰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군 공항 이전 반대 행위가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접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무안군은 지금부터라도 객관적 여론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43년 만에 정신적 피해 인정받은 5·18 유가족들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 3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 가운데 50~89%를 인정해 정부가 유족들에게 800만 원~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5·18 당시 '꼬마 상주' 영정 주인공인 조사천(당시 34세)씨 유족과 헌혈을 마친 후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박근희(당시 17세) 양 가족, 시민들을 구타하는 계엄군에게 항의하다 폭행 당해 후유증으로 1983년 세상을 떠난 차중성 씨 유가족 등이 참여했다. 또한 유석열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을 마친 후 참배했던 전영진·정운식 열사 유가족도 함께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며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해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가운 판결이지만 5·18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43년 만에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던 이들은 어느덧 40대 후반의 중년 나이에 이르렀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아직도 일부 유가족은 43년째 행방불명 상태인 가족들을 애가 찾고 있다.

정부는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으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43년 전 국가 폭력으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깊은 상처를 하루빨리 아물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려나 조선시대 문헌에는 머리가 작고 움츠린 모양을 보고 병어를 축항어(縮項魚)로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전라도 연안 몇몇 지방의 토산물로 기록돼 있고 '난호어목지'에는 서남해, 특히 호서 도리해에서 많이 난다고 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편어(扁魚)로 칭하면서, 처음으로 속명을 병어(瓶魚)로 분류했는데 병어의 맛을 더 즐긴 쪽은 동생 정약용이었다.

다산은 '여름에 읍청루에서 목 정자 조영 등 제공을 모시고 술을 마시며'라는 시에서 병어를 예찬했다. "물가의 누각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푸른 물결 띄처럼 도성을 감고 도내/ 저 뱃길로 옛적에는 장요미(좋은 쌀)를 바쳤는데/ 갯과 저자 오늘날 축항어를 사온다오"

오늘일을 대표하는 생선하면 병어가 첫 손에 꼽힌다. 병어는 평소 깊은 바다에서 식하지만 5~8월 사이 내해나 하구로 들어와 산란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는 신안 임자도다. 산란철이면 영양분을 품고 있는 임자도 전장포 해역으로 첫새우가 몰려드는데 첫새우를 잡아먹기

위해 물고기들이 따라온다. 첫새우를 따라 3~4월에는 깡다리(황석어), 5~6월에는 병어, 7~8월에는 민어 순으로 몰린다.

임자도 서쪽 하구리항은 예부터 '다리파시'라는 큰 장이 켜졌다. 오뉴월이면 살오른 병어가 해변을 가득 메웠고 뱃사람과 상인들이 물리면서 일제 감정기에는 치안을 위해 주재소가 있을 정도였다. 오늘날에는 지도를 송도어판장이 국내 최대 병어 도매산지 역할을 한다. 병어철이면 지도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승객보다 병어

상자가 더 많이 실린다.

‘금값’ 병어

하지만 요즘 지도에서 출발하는 버스에선 병어 상자를 구경하기 힘들다 고 한다. 제철을 맞았지만 한 마리에 5만 원이나 할 정도로 금값이기 때문이다. 어획량 감소가 원인이라지만 뼈째 썰어 막된장에 찍어 갯물에 새 썩는 병어회를 올리는 맛보기 힘들 것 같아 아쉽다. '어식백서'(漁食百種)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수협이 오는 6월부터 12일까지 광주 매일동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병어 특판 행사를 한다는 데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수자, 편집총괄국장 최우성,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